濟州大 亞農研 12 : 101~114(1995) Subtrop. Agric. Cheju Nat. Univ. 12 : 101~114(1995)

21세기를 향한 제주농업의 발전방향

강 지 용

A Study on Development direction of Cheju Regional Agriculure toward 21st Century

Kang, Ji-Yong

The overall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accomplish the future image of Cheju agriculture in the 21st century by carrying forward reorganizing the production field, composing the balanced system of combined pooducrion, and constructing the composite supply site for chemical-free agricultural products. Strategies on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for each crop are as follows : 1) to establish the promising kingdom of citrus in an era of internalization, 2) to build up the livestock management pursuing low cost, high quality, and high efficiency, 3) to construct the composite whole year supply site for fresh vegetables, having strong competitiveness between areas of production, and 4) to construct the composite whole year supply site for high quality flowers.

1. 서 론

'80년대 중반부터 우리나라의 농업여건은 매우 빠르게 변하고 있다. '86-88년 국제수지의 흑자를 이유로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수입개방 압력이 거세게 밀어 닥쳐왔으며 또 한편으로는 농산물 교역을 둘러싼 세계 교역질서의 왜곡을 시정하겠다는 UR농산물 협상의 여파로 우리나라의 농업도 수입제한이라는 보호막을 벗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고 농산물도 국제화·개방화 시대의 소용돌이 속으로 휩싸이게 됐다.

근년의 수입개방 추이를 살펴보면은 '89년 4월에는 1989-1991년까지 3개년에 걸쳐 농림수산물 243품목에 대해 자유화계획을 예시한 바 있었고 또 동년 10월에는 우리나라가 GATT 18조 B항(국제수지조항)에서 졸업하게 됨에 따라 UR협상과는 별개로 1992-1997년까지 6년간 2회에 걸쳐 잔존 수입제한 품목에 대해 개방품목수를 균분(均分 : Even maner)하는 방식으로 수입자유화 계획을 예시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

부는 '91년 3월에 우선 1차적으로 1992-'94년 3년간의 농림수산물 수입자유화 예시계획을 발표하였다. 1차 예시계획에 따르면 개방품목수는 총 131개 품목이 선정됨으로써 수입자유화율은 '94년에 92.1%로 높아졌다.

한편 7년 넘게 추진되어 오던 UR협상이 '94년 4월 15일 모로코의 마라케쉬에서 열린 각료급 회의에서 각료들이 최종의정서에 서명함으로써 마침내 종결되었다. 이 최종의정서는 그 동안 7년 넘게 추진되어 온 협상결과를 종합한 문서로 이 의정서는 세계무역기구(WTO)설립협정과 각료회의 결정 및 선언으로 구성되었다. 말도 많았던 UR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95년부터는 모든 농·축·수산물이 예외없는 관세화로 수입을 개방하기에 이르게 됐다. 따라서 지금까지 수입을 무조건 금지하거나 제한해 오던 품목에 대해서 직접적인 수입제한 조치들을 풀어 원칙적으로 수입을 허용하되 관세는 물릴수 있도록 하고 그를 통해서만 수입을 규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95년부터는 쌀을 비롯한 오렌지 등 지금까지 수입금지 됐던 품목들이 최소시장접근 방식으로 개방되기에 이른 것이다.

UR협상 타결과 WTO의 출범으로 인해서 국제경쟁력을 채 갖추지 못한 제주의 농업은 심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고 지역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개방의 여파가 지역 경제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제화·개방화 시대와 더불어 21세기를 불과 5년을 남기고 있는 세기적 전환기에서 제주농업이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인가를 살펴본다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2. 농업을 둘러싼 정세

1) WTO 출범과 농산물 수입자유화

UR협상 타결과 WTO(세계무역기구) 출범으로 쌀을 비롯한 오렌지 등 지금까지 수입 금지됐던 모든 품목들이 최소시장접근 방식으로 개방되었고, 이로 인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감귤 등 제주의 농업은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2) 농산물 수급의 과다와 가격 하락

농업생산은 농산물의 수요 즉 소비의 변화에 크게 좌우된다. 최근 소비형태는 곡류소비가 감소하고 있고, 축산물과 고급 과일류의 소비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리고 생산력 향상으로 농산물 생산은 수요를 상회하고 있는 상태인데 외국산 농산물의 수입 확대로 공급은 초과 상태이고, 이로 인하여 농산물 가격은 더욱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3) 농산물 유통의 다양화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농산물에 대한 수요는 다양화되어 안전하고 건강하고 고향의 것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농산물 유통면에서도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결하는 시장의 유통, 협동조합과 슈퍼마켓 등의 직판장 등 다양화되고 있어 여

기에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4) 취약한 농업구조

새로 농업에 종사하는 젊은 노동력이 감소하고, 농업노동력의 고령화가 계속되고 있다. 호당 평균 경지면적은 1.3ha이나 유럽농가의 20분지 1, 미국 농가에 100분지 1 정도로 규모가 영세하며 그나마 1ha미만의 농가가 전체의 60%에 달하고 있다.

최근 시설농업, 양돈 등에서 경영규모의 확대를 꾀하고 있지만 농지의 유동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규모확대가 늦어져 국제경쟁력이 약한 상태이다.

5) 농업기술의 진보와 고도정보화의 진전

생체공학(바이오테크놀리지 : biotechnology)을 시작으로한 첨단기술은 실용화의 단서를 마련했고 앞으로의 진보에 따라 기대되고 있으나 아직 농가가 이용하기에 덜 보편화되어 있다. 그러나 첨단농업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이들 기술을 도입 보편화시켜야 할 것이다.

또 정보기술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신속히 얻을 수 있게 되어 이들 기술의 성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경영발전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3. 農業의 價値

경제가 성장 발전하는 과정에서 흔히 農業을 사양산업이니 쇠퇴산업(Declining Industry) 이라고 한다. 이러한 주장은 국민 총생산(GNP)에서 차지하는 농업의 비중이나 농업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단순한 산술적 가치만을 갖고서 말하는 것이라 하겠다. 국민총생산에서 농업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비록 70년에 44.7%에서 90년에는 7.6%로, 같은 기간동안에 농업인구 비율은 44.7%에서 15.6%로 낮아졌지만 농업생산은 연평균 2.8%씩 성장을 계속해 왔으며 연간 3백20만명을 고용하여 약 16조원을 생산하고 있어서 농업은 국가경제적 측면에서 결코 경시할 수 없는 산업이다. 뿐만아니라 농업이 갖고있는 가치나 중요성은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농업의 비중이 높거나 낮건 간에, 과거나 지금이나 전혀 변하거나 쇠퇴하지 않고 있다.

농업이 지니고 있는 가치로서는 첫째, 국민들에게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교적 여유있는 시대에 태어난 세대는 말할 필요도 없고 심지어 50~60년대의 보릿고개를 겪어 본 세대도 요즘의 풍요한 식량사정때문에 식량의 소중함이라든지 긴급성을 잊어버린 것 같다. 식량공급의 긴급성이라는 것은 석유나 다른 원재료의 긴급성과는 다소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석유가 없어지면 곧 경제가 마비되는 것은 확실하지만 한두달동안 국민의 생명에는 위태롭지 않다. 그러나 식량은 매일 매일 소비된다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일주일이라도 식량공급이 끊기면 국민생활은 전면적으로 파괴된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아프리카의 여러나라나 東歐諸國 舊蘇聯등을 보아도 잘아는 사실이다. 둘째로 농업은 자원을 보호하고 보존시키며 쾌적한 국토환경을 조성하여 국민들에게 휴식공간

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농업이 자원을 보호, 보존하거나 홍수 토양유실 환경과괴 등을 방지하고 유해물질을 정화하는 經濟外的 가치는 농업이 생산하는 경제가치의 몇 배나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외에도 농업은 지역사회를 유지시키는 역할을 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든지 국민들에게 각종 유해물질에 오염되지 않은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여 국민건강에 기여하는 등 농업의 가치는 이루 말할수 없다. 그렇기때문에 선진국에서는 GNP에서 차지하는 농업의 비중이나 농업인구가 우리나라에 비해 훨씬 낮은 2~3%에 불과해도 자국의 농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데 많은 노력과 투자를 계속하고 있으며 농산물 수입개방이나 협상에서 한치의 양보도 안 할려고 한다.

〈표1〉 國民經濟에서 農業의 地位

구 분	한 국	일 본	미 국	프 랑 스	영 국
국민총생산	29	314	545	110	92
농업총생산(%)	2	9.4	10.9	4.4	1.8
(100억$)	(6.9)	(3)	(2)	(4)	(2)
총 인 구	42793	123520	249224	56406	57438
농업인구(%)	6661	7571	6564	2760	1147
(100명)	(15.6)	(6.1)	(2.6)	(4.9)	(2.0)
총취업인구	18036	62397	122850	25579	28423
농업취업인(%)	3152	4013	2872	1341	567
(100명)	(17.5)	(6.4)	(2.3)	(5.2)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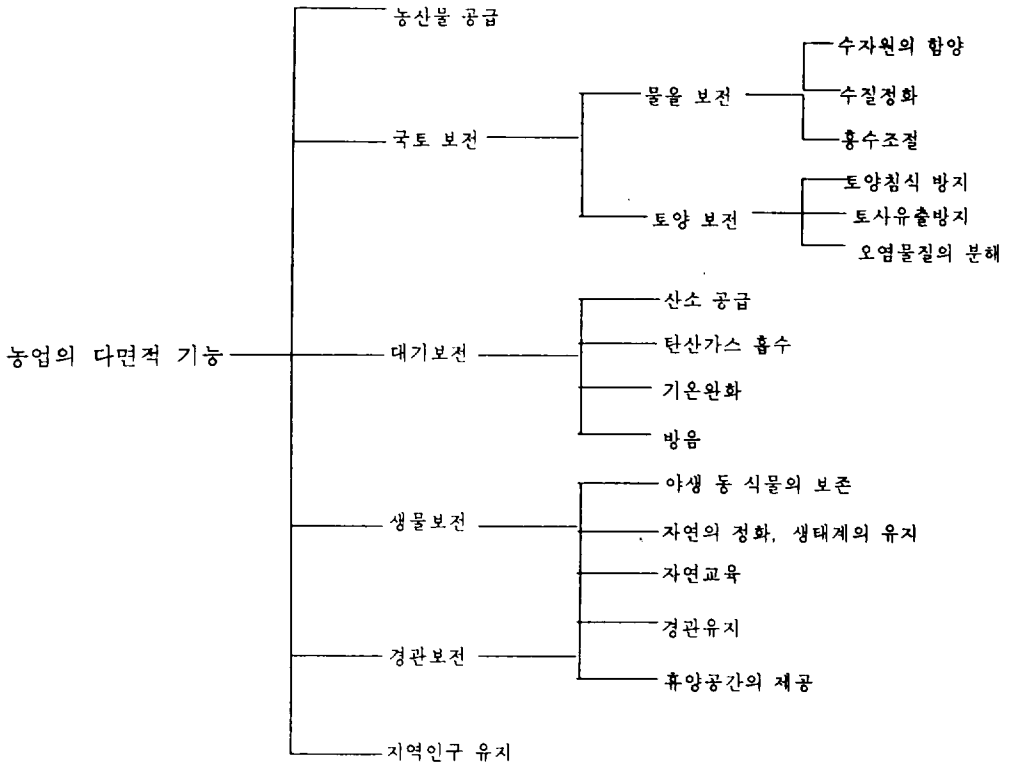
(1991년도 기준)

〈표2〉 주요국의 식량자급율

국별 품목별	곡 류	서 류	두 류	야채류	육 류	우유·유제품	유지류
프 랑 스	119	108	196	89	99	117	79
독 일	95	96	16	27	92	119	116
영 국	113	94	80	58	81	93	38
이탈리아	83	96	79	128	74	65	81
스 위 스	47	100	14	58	90	109	39
미 국	172	109	128	98	97	93	111
일 본	30	91	9	92	72	80	30
한 국	40.1	97.5	20.1	100	85	80	44.5

* 일본, 한국 1990년, 기타나라 1985년

〈표3〉 農業의 多目的 機能



〈표5〉 日本에서 畓의 洪水 억제기능 평가

畓의 有效貯水 容量 ① (億M³)	76.1
M³당 댐 건설비 ②(円)	1,200
답의 저수용량에 상당하는 댐건설비 ①×②=③ (億円)	91320
위 댐의 매년 감가 상각비 ③÷50년=④(億円)	1826.4
위 댐의 건설비 利子 ③×0.06=⑤ (億円)	5479
위 댐의 매년 유지 관리비 ③×0.025=⑥(億円)	2283
매년 댐 건설유지비 부담액 ④+⑤+⑥=⑦(億円)	9588

4. 濟州道 地域經濟에서 農業의 役割

제주지역의 농업은 자연과 지리적 여건 등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농업의 역할이나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 지역경제에서 濟州道농업은 중요한 所得源이며 동시에 상당한 고용수준을 유지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있다. 94년도 농업조생산액은 약 8천4백억원으로 지역총생산(GRP)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제활동인구의 32%에 해당하는 8만 여명을 고용하고 있는등 경제적 수치만 봐도 알수있다. 그리고 농업소득은 관광소득에 비해 도민들에게 소득증

대효과나 분적 측면에서 기여하는 바가 크다. 일례로 감귤조수입과 관광수입을 비교해보면 94년도 감귤조수입은 5천5백억원이며 소득률은 75%로 나타났는데 이는 감귤조수입중에서 74%인 4천70억원의 소득이 감귤농가에 직접 귀속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감귤조수입중 도외유출은 농약비, 비료비 등 약 17%에 불과하기 떠문에 그만큼 도민들의 소득증대나 분배에 기여하고 있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하겠다. 그러나 관광수입은 94년도에 약 8천억원으로 감귤조수입보다 2천 5백억원이나 많지만 관광투자가 외부자본에 많이 의존하고 있어서 관광수입중 상당부분이 도외로 유출되고 있기 때문에 外貨內實으로 소득증대나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효과가 감귤보다도 못한 실정이다. 또 제주도 농업은 안정된 직업으로서의 역할도 하여왔다. 제주도 농가인구중에서 20~50대까지의 젊은 농가인구비중이 전국평균에 비해 높고 60세 이상의 노령인구비율은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지역의 농업보다 濟州道농업이 직업적으로 가치가 더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끝으로 濟州道농업은 훌륭한 관광자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노란 유채밭, 감귤원, 심지어 돌담에 둘러싸인 조그만 耕地까지도 모두 관광자원이다. 만일 농업이 활기를 잃게 된다면 관광지로써 濟州道의 가치는 그만큼 반감될 것이다.

〈표6〉 제주도 지역경제에서 농업의 지위

구 분	85		92	
	금 액	%	금 액	%
	8231	100	23370	100
1차	3463	42.0	7175	30.7
2차	281	3.4	982	4.2
3차	4497	54.6	15214	65.1

〈표7〉 제주도 취업구조에서 농업의 지위

구 분	'91	'92
경제활동인구	250	251
1차 산업	34%	33.5%
2차 산업	4%	5.6%
3차 산업	62%	60.9%

5. 濟州道 農業의 問題

1) 農産物 輸入開放에 따른 問題

외국산 농산물이 수입개방되면서 제주도 농업은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1991년 수입자유화된 바나나와 파인애플은 제주도 재배농가에 큰 손실을 입혔고 생산이 거의 중단되도록 했다. 특히 최근에 중국과 교역이 확대되면서 중국산 농산물수입이 급격히 증가되어 제주산 유채, 고구마, 참깨, 콩 등의 농산물에 큰 타격을 주고 있어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피해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수입농산물로 인해서 제주도 농가의 조수입이 감소되었고, 조수입 감소액수는 해마다 년간 약 1000억원 정도로 추산되는데 이는 도내 농가1호당 약 250만원 정도의 소득 감소효과를 의미한다.

〈표7〉 주요국의 농가경영 규모

국 명	1호당 경지면적
서 독	15.3ha
프 랑 스	25.4
이탈리아	7.4
네델란드	15.6
벨 기 에	15.4
룩셈블크	27.6
영 국	68.7
아일랜드	22.5
덴 마 크	25
EC 9개국	17.2
미 국	180
일 본	1.2
한 국	1.2
제 주	1.36

2) 零細한 經營規模

제주도 농가의 호당경지면적은 1980년의 0.9ha에서 1990년에는 1.36ha로 다소 증가하였고 전국 평균 1.2ha 보다는 높지만 여전히 1ha 정도의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그나마 3~4필지고 분산되어 있으며 굴곡이 심하고 농지내에 돌이 많다.

규모의 영세성과 농지의 분산은 기계화를 어렵게 하고 비록 기계화가 실현된다 하더라도 효율적인 이용을 기할수 없어 생산비 절감을 통한 국제경쟁력을 강화 시킬수 없는 실정이다.

〈표8〉 10a당 地價(1991년 기준)

국 명	지 가
독 일	451
프 랑 스	119
네델란드	381
영 국	162
미 국	157
일본(田)	928
한 국	755

단위 : 千円

3) 규격한 農業人口의 流出

제주도 농업인구도 산업화 및 도시화의 영향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노령화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10년간 농업인구는 약 11만명 정도가 감소했고, 농업인구는 50세 이상의 고령인구 비율이 17.2%에서 27%로 10%포인트가 높아졌다. 빠른 농업인구의 유출로 노임이 상당히 비싸졌고, 방제나 제초 등 힘한 일은 기피하고 농번기때는 인력을 구하기가 힘들어 도외지역에서 고용해오

고 있는 실정이다.

4) 流通構造의 問題

제주도는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주위가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섬이기 때문에 해운이나 항공에 의한 수송을 해야하므로 유통단계가 복잡하고 유통비용이 많이 든다. 뿐만아니라 유통정보 획득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육지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농산물 수송여건을 유리한 기후조건으로 상쇄할 수 있을때 제주도 농업이 경쟁력을 얻을 수 있는 데 육지부의 비닐하우스 재배면적의 확대로 그 특성마저 위협받고 있으며 산지의 제반 유통시설이 부족하여 홍수출하하고 있고, 생산자 단체의 산지유통기능이 미흡으로 상인들이 산지유통을 주도하고 있으며 포전거래 농가의 시장교섭력이 약화되는 등 유통구조상의 많은 문제점을 안고있다.

5) 農外就業機會의 不足

제주도는 판매시장의 협소, 관광지로서의 자연경관보존, 환경오염 방지와 기타 여러가지 제약조건 때문에 제조업이 발달하지 못한 관계로 농외취업의 기회가 적어 농가가 소득중 농외소득의 비율이 20%정도여서 우리나라 전체평균의 40%와 비교해 볼 때 제주도 농가의 농외소득 비율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농가 호당평균 1.3ha의 농지에서 농업소득을 증대시키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농외소득을 올릴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표9〉 한국과 일본의 농가소득 비교('92년 기준)

	제주(1000원)	한국(1000원)	일본(1000엔)
농업소득①	8427	7536	1430
농외소득②	5041	7149	5526
농가소득(①+②)=③	13468	14505	6556.3
농외소득비율	37.4	49.3	79.4

① 제주는 '93년 기준
② 이전 수입은 제외.

6) 柑橘爲主의 濟州道 農業

제주도 농업은 감귤위주의 농업이고 감귤이 제주도 농업과 지역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다. 감귤일변도의 농업은 수입개방이라든지, 흉.풍작, 자연재해 등에 의해서 큰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따라서 다소 위험하다고 할 수 있다. 제주도 농업생산액중 감귤의 비중이 '88년에는 50.7%, 90년에는 56.5%, 94년에는 60%를 넘어서고 있으며 감귤가격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농가소득 뿐만아니라 도민소득에도 크게 영향을 주는 등 지역경제에 너무나 많은 영향을 주

고 있다. 감귤생산액이 제주도 농업생산액의 50%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일이나 감귤말고는 다른 뚜렷한 대체작목이 없는 것이 제주도 농업의 현실이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농업소득을 다양화하여 위험을 분산시킬 필요성이 있으며 지역복합화 방안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표10〉 제주도 농업생산액중 감귤생산액의 비중

	총 조 수 입	감 귤 조 수 입	감 귤 비 율
88	4154(억원)	2106(억원)	50.7(%)
90	5580	3151	56.5
91	8359	5521	66.0

〈표11〉 柑橘이 果樹에 차지하는 比重

	1970	1980	1990	1992	1993
과실 생산량(千t)	423	833	1,766	2.090	1768
감귤 생산량(千t)	9	187	493	719	619
점유율(%)	1.2	22.4	27.9	34.4	35.0

〈표12〉 감귤의 地域經濟의 比重(1994年)

	濟州道(억원)	愛媛＊(억엔)	和歌山＊(억엔)
감귤생산액	5521	700	440
농업조수익	8539(66%)	2000(35%)	1517(29%)
감귤의 GRP비중	16%	1.7%	1.6%

＊ 일본은 '92년도 기준

6. 21世紀를 向한 새로운 제주형(型) 농업이 지향하는 方向

21세기 제주농업이 긍정적인 미래상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농정의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해야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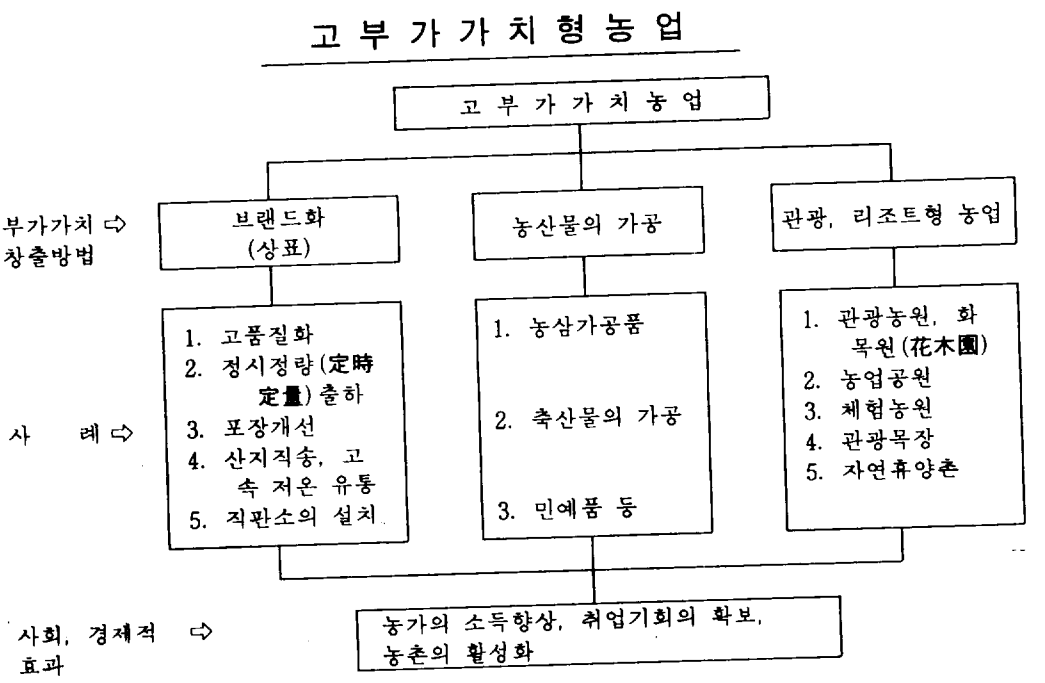
1) 제주농업의 미래상

· 농업 : 지속적으로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종합생물산업으로 정착

· 농민 : 기업가 또는 전문엔지니어링으로 변모

· 농촌 : 깨끗한 환경과 풍요로움이 보장된 삶의 터전

2) 높은 생산성, 고품질로 국제 경쟁력을 강화



· 비용을 줄이고 품질은 향상하며 높은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우수한 품질로 유명한 상품산지를 형성

· 수요에 따른 농업생산을 전개

감귤, 축산, 채소, 감자 등을 기간으로 하면서 적정생산을 유도하고, 화훼, 감귤 이외의 과수, 양돈 및 그 외의 특산품을 개발하고 생산을 증가시켜 나간다.

3) 든든한 농업구조의 구축

· 경영능력, 기술력이 뛰어난 중핵농가와 이것을 중심으로 하는 생산조직인 생산의 과반수 이상을 담당하는 안정된 농업구조를 지향

· 이와 더불어 고령화가 두드러진 지역, 과소지역, 산촌, 관광리조트 지역 등 각각 지역과 노동조건이 갖추어진 농업을 전개

4) 밝고 살기좋은 농촌의 건설

· 도로, 상 하수도 등의 사회자본의 충실

주요 작목별로 본 중핵농가의 생산 점유율 목표				
밀 감	화 훼	채 소	양 돈	시설감귤
60%	80%	60%	90%	80%

과 마을의 활력을 돕는 시설건설 등 생활환경의 정비를 추진

· 고향을 떠나지 않고 모두가 찾는 마을을 만든다.

· 기업의 유치, 관광 리조트와 연결된 농업추진등에 따라 소득을 올리는 기회를 확대

7. 生産振興의 方向

21세기 바람직한 제주농업의 미래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산지재편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면서, 저코스트(비용) 토지이용형 농업의 추진과 바이오테크놀로지 등 첨단기술과 자본집약한 부가가치가 높은 개성적 농업의 추진을 기본으로 하여 균형잡힌 복합생산체제의 편성을 도모하면서, 제주의 온난한 기온과 무공해 청정농산물의 종합적인 공급기지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며 다음과 같은 작목별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1) 국제화시대를 선도하는 감귤왕국의 확립

최적품종의 도입과 우량단지의 확보 등 산지의 재편정비를 추진하고, 적은 비용으로 고품질 감귤생산체제의 확립을 꾀한다.

이것과 더불어 감귤의 周年공급체제의 정비와 특색있는 신흥과수(단감) 등을 결합한 다각경영의 도입을 추진한다.

■ 감귤의 기본방향

(1) 고품질의 좋은 감귤 생산

① 적지적산을 기본으로 한 명산지의 강화

② 부적지 과수원의 타작물 재배 전환

③ 시설재배 등에 의한 개성화 상품의 생산

④ 하이테크수법 등에 의한 우량품종의 개발 보급

④ 재배기술의 개선

(2) 저비용생산체제 수립

① 교환분합과 임대차 등에 따른 과수원의 유동화와 적정규모로의 확대

② 작업도로 정비, 과수원 개조 등 생산기반의 정비

③ 저비용생산 기술의 확립

④ 생산력의 향상

⑤ 농업경영의 안정

⑥ 중핵농가 및 후계자 육성

(3) 판매력의 강화

① 집출하체제의 강화

② 가공시설의 점진적 확대 및 신제품의 개발

③ 판매방법의 개선

④ 상품화의 확립 및 판매촉진

⑤ TV등 매스콤을 이용한 선전강화

⑥ 수출의 확대

⑦ 수송체제의 개선

⑧ 정보시스템의 적극적 활용

(4) 수급조정의 추진

① 계획생산 출하체제의 강화

② 가공원료용 과실의 가격 안정

2) 자연과 지역이 특성을 살리는 저비용, 고품질의 고능률 축산경영의 확립

밭작물과 축산을 연결해서 생산성이 높은 축산경영의 확립을 지향하면서, 사료기반의 정비와 저이용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한 사료자급율의 향상, 배합사료 유통의 합리화, 생체공학 등 신기술의 개발, 보급 등 지역의 특성을 살리면서 저비용, 고품질의 고능률 축산기지의 형성을 추진한다.

· 낙농 : 사료생산 기반의 확충, 소 집단 개량의 추진, 유 육복합경영을 통한 경영체질의 강화 등에 의해 수요의 판로 확대를 꾀하면서 고품질 낙농생산기지의 형성을 추진한다.

· 비육우 : 국제경쟁력이 있는 한우와 F1소(수입소와 한우의 교잡종) 등 고품질 육우 생산 체제를 강화하는 것과 더불어 비육우의 도내 안정공급, 경제 비육기술의 확립 등에 따른 소비자의 요구에 대응한 저비용, 고품질의 비육우 생산기지의 형성을 꾀한다.

· 양 돈 : 수출확대를 도모하고 우량계통 돼지의 이용, 사육기술의 개선을 통한 육질 향상과 일류화, 예방위생의 철저 등에 따른 고품질화를 꾀하면서 고능률시설형 축산기지의 형성을 추진한다.

· 양 계 : 소비자의 요구에 들어맞는 고품질 저비용 계란, 닭고기의 생산을 추진하고, 안정적 시장의 확보와 판로의 확대를 지향하고, 省力사육기술의 확립 등에 따른 대규모시설형 축산기지의 형성을 지향한다.

■ 축산물의 기본방향

(1) 고품질 생산체제의 확립

① 축산물의 품질향상

② 개체 능력의 향상

(2) 생산기반의 강화와 저비용 생산의 추진

① 사료 생산기반의 정비와 사료 지급율의 향상

② 한우생산기반의 확립

③ 하이테크등의 이용에 따른 신기술 개발과 보급

④ 저비용 생산기술 체제의 확립

⑤ 유통 사료공급체제의 정비

⑥ 경영 안정 대책의 추진

(3) 판매력의 강화

① 유통체제의 정비

② 상품화 확립과 판매촉진, 신상품 개발

③ 매스콤 이용에 의한 선전의 강화

(4) 전국적인 수급조정의 추진

① 계획생산의 추진

② 축산물 가격의 안정

3) 산지간 경쟁력이 강한 신선한 야채의 종합적인 주년 공급기지 만들기

야채의 집단산지의 체질강화와 비가림 등 시설도입에 따른 산지화와 유통구조개선을 꾀하는 한편, 작부체계의 개선, 완숙한 퇴비의 사용 등으로 연작장해의 회피, 단지화로부터 생산성과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면

서, 제주의 온난한 특성을 살리면서 무공해 청정의 신선한 야채종합공급기지의 형성을 도모한다.

■ 야채물의 기본방향

(1) 기반이 든든한 산지조성

① 집단산지의 육성
② 지역특산 야채산지의 육성
③ 생산조직의 확충 강화
④ 윤작(輪作) 야채 대책

(2) 안정생산의 추진

① 주년 공급체제의 추진
② 생산성 향상
③ 저비용 생산대책

(3) 고품질 야채 재배

① 우량 종묘 안정공급
② 신기술, 신품목의 개발보급

(4) 판매대책 강화(유통대책)

① 공판체제의 확충강화에 따른 명산지 확립
② 수요동향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출하체제의 정비
③ 새로운 판로의 확대

(5) 수송조건의 변화에 대응한 유통체계 확립

① 품질 신선도 유지를 위한 저온 유통체재의 정비충실
② 효율적인 수송수단의 활용
③ 항공수송의 적극적인 추진

(6) 야채가공공장 설립(가공대책)

① 높은 부가가치에 따른 새로운 소비형태의 창출

(7) 농가경영의 안정(가격대책)

① 가격안정체제의 충실강화
② 전국적인 수급 조정

4) 소비자의 요구에 꼭 맞는 고품질 화훼의 주년 종합기지 구축

시설을 중심으로한 규모확대, 생산성이 높은 집단산지의 육성, 양액 재배기술을 활용한 신품종, 신작형의 개발, 화훼진흥의 거점의 설치, 시장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집출하체제의 개선 등을 통해 소비자의 요구에 꼭맞는 좋은 품질의 화훼의 주년 공급체제의 형성을 꾀한다.

■ 화훼의 기본방향

(1) 고품질 안정생산 체제의 확립(생산대책)

① 기존 산지의 충실 강화
② 신(新) 산지의 육성 및 산지의 집단화
③ 생산자 조직의 강화
④ 저비용 생산의 추진
⑤ 시설화의 추진
⑥ 우량종묘의 확보
⑦ 신품종의 개발 및 보급
⑧ 산지·소비지 정보의 연락체제 정비
⑨ 연구지도체제의 강화

(2) 집출하체제 개선(유통대책)

① 시장정보의 수집과 전달
② 수송체제의 개선
③ 시장과의 연휴에 따른 계획 출하

(3) 소비확대(소비대책)

① 화훼전시회의 개최
② 소비선전의 강화
③ 취미원예의 보급

◆ 참고 문헌 ◆

○ 강지용, 제주도 농업의 문제와 전망,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아라논촌 제2집, 1993.

○ 강지용,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제주형 농업의 전개, 제주의 농업과 경제 5-6월호, 1995.

○ 강지용, WTO와 제주농업, 제주도지 제97호, 1995.

○ 농협중앙회, 일본신농업정책의 분석, 농협중앙회 조사부, 1993.

○ 농협중앙회, 21세기의 농업재건과 일본농협의 개혁, 농협중앙회 조사부, 1994.

○ 한두봉외, 21세기를 향한 한국농업의 발전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2.

○ 이두순외, 21세기를 향한 일본농정의 기본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7.

○ 이상무외, 세계의 농정전환과 우리의 선택, 농정연구포럼, 심포지움 시리즈